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김창인, 신성중, 유창무 목사 여름산상부흥성회, 충현기도원에서 8월 22(월)~25일(목)까지

충현기도원은 8월 22~25일까지 부흥성회를 갖는다. 모든 교회학교가 여름수련회를 실시하여 새로운 신앙자세를 확립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데 반해 일반 성인들을 위한 여름수련회 프로그램이 부족한 편인데 금번 산상부흥성회는 그런 면에서 일반 성인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동안의 여름행사와 무더위로 해이해졌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구역예배와 금요집회가 다시 시작되고 예수사랑 큰잔치가 본격적으로 준비되는 이러한 시기에 모이는 여름산상부흥성회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8월 22일 저녁 8시부터 25일(목) 새벽까지 모임 산상부흥성회의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 당회장 신성중 목사, 기도원 지도 유창무 목사가 담당하며 오전 5시 새벽기도, 낮 11시 성경공부, 오후 8시 부흥회로 모이게 된다.

기간 중 숙식이 기도원에서 가능하고

기도원을 왕복하는 차편도 준비되어 교회에서 오전 오후에 나누어 출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현기도원으로 문의하면 된다(0347-64-4425, 4472)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교육참가

교회는 '94 교회음악지도자 과정 워크숍에 우리 교회 찬양대의 일부 지휘자와 반주자를 참가 시키기로 하고 그 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8월 1일~3일까지 뱃불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김영준(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최광덕(아멘 찬양대 지휘자), 채은실(호산나 찬양대 반주자), 최덕식(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이 참여했다.

중·고등부 학생 선교기도모임 여름수련회 8월 7~9일, 충현기도원에서

선교위원회는 우리 교회 중등 1·2·3부와 고등부의 선교 기도모임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여름수련회와 선교훈련을 8월 7일~9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갖기로 했다.

중등 1·2·3부 35명, 고등부 15명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 될 선교 기도모임 여름수련회는 선교위원회 지도인 김영대 목사가 강사로 수고하며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선교지에 대한 이해, 선교사역을 위한 준비 등 선교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 수련회에는 중고등부에서 6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돕는다.

김창수 목사 귀국

안식절 선교사의 안식년 휴가로 수리남 선교지에서 일하던 김창수 목사가 모든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교회는 8교구 지도에 김수상 목사를 면하고 김창수 목사는 제8교구 지도로 임명했다.

학원전도회 수련회

학원전도회 여름수련회가 8월 12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이번 수련회에는 장봉생목사(대학부지도)의 특강이 있다.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는 중국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할 일은 중국어 번역 및 문서작성, 통역 등의 업무이다. 희망자는 기획실(Tel 552-8200, 교환 430)로 연락하면 된다.

'94 예수사랑 큰잔치

9월, 본격적인 추진-잃은 양 찾기 등 구역장 특별훈련 및 결신자 관리등

그동안 준비하고 계속하여 진행 해 오고 있는 '94 예수사랑 큰잔치가 9월 들어서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일은 교회와 교구, 온 구역이 한 마음이 되어 감당해야 될 일로 ① 등록교인 전체를 예배 및 집회에 참석케 하는 일 ② 잃은 양 찾기운동으로 크게 두가지이다. 이 일을 위해 예수사랑 큰잔치 동원분과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교인 전체를 예배 및 집회에 참석토록 한다.

1) 구역조직의 재정비(9월 한달을 구역정비의 달로 정한다)

(1) 교구별로 각 구역의 세대별 현재 출석인원의 확인 점검

· 세대별로 성분 분석(열심있는 식구, 불출석구 등)

(2) 불출세대, 재적세대를 파악

(3) 각 구역 예배를 저녁시간으로 드리며 전 구역식구 총동원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2) 구역장 재무장교육(9월 한달을 구역장 재무장 교육주간으로 정한다)

(1) 강사: 당회장 신성중 목사

(2) 시간: 매주 수요일 12시 40분부터 2시까지(식사는 교회에서 제공)

(3) 강의내용: 구역장의 역할과 영적무장(1시간): 강의 신성중 목사, 기도회(20분) 인도 최인근 목사

3) 예배참석 출석확인 시작

(1) 매주일 각 교구는 구역식구들의 예배출석을 점검한다.

(2) 구역별로 구역장들이 구역식구들의 출석을 점검하여 결석자는 결석사유를 기록하여 교역자에게 보고하고 교역자는 1주 결석자는 전화로 출석을 권면하고 2주이상 결석자는 심방을 한다.

(3) 모든 결과는 주어진 양식에 의해 각 교구는 동원분과로 매주 결과로 보고한다.

(4) 동원분과는 각 교구별로 종합하여 매주 당회장님과 기획분과로 보고한다.

2. 잃은 양 찾기운동을 전개한다

1) 잃은 양 대상자

(1) 구역식구 가정 중에 불출자

(2) 교회를 출석하다가 현재 출석치 않는 낙심자

(3) 1993년도 예수사랑 큰잔치 참석자 중 등록이 되지 않는 자

(4) 재적자중 교회 불출자

2) 실천방안

(1) 명단작성: 8월 7일까지

(2) 잃은 양의 분류를 마친 후에 그리스도의 편지 발송: 8월 14일

(3) 각 교구별로 심방 가능한 가정은 구역별로 1차로 심방을 하고

(4) 결과를 교역자에게 보고하면 사안에 따라 교역자가 심방을 한다.

3. 기존 구역장의 재교육

이미 지난 학기 3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1부 예배후 성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구역장 교육이외에 기간 중에 구역장 대학(재무장 교육)을 8월 24일~8월 31일

두 주간 동안 각 교구별로 교구목사가 실시(집중교육 교육 및 예수사랑 큰잔치 진행에 대한 계획검토, 단합, 기도회를 실시한다)

4. 결신자 관리

(1) 새가

죽부와 협력해서 양육교육

(2) 구역장을 통한 주소확인,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여 교역자에게 보고한다(10월 30일)

(3) 교역자는 10월 30일 주간부터 특별심방에 들어가며 그 결과를 교구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4) 교구별로 환영회를 실시한다.(10월 30일)

(5) 12월에는 결신자들이 얼마나 교회에 출석해서 안정이 되는지를 파악한다(12월 11일)

(6) 결신자 중에 출석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교구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한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고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시

편 75편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증거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5편은 아삽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저작 환경

시편 75편의 저작환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진지 얼마를 지나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몽땅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유대도 삼켜 버리려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쳐내려옵니다. 그 앗수르 군대들이 내려오면서 공갈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에 남방 유다는 앗수르와 더불어 싸울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천번 싸우면 천번 질 수 밖에 없는 그들입니다.

이런 때에 젊은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원수들이 협박 공갈할 때에 귀로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입으로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말라. 오직 너희들의 할 일에 충실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살려 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살려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으니 이사야 선지자님 기도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난 유대백성들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대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이번 전쟁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도 많이 받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데 이기고 하나님의 선물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 왕이 힘을 얻고 감사해서 기도할 때에 아삽의 자손인 한 사람이 이 시편 75편을 씁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원수와 타협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으니 살려주실 것이 틀림없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선지자의 보고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 쓰는 이 시편,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2. 하나님께 감사하자(1절)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저작환경에서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남유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오는데 싸울 힘이 없으면서도 감사하다는 것은 말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고 연거퍼 말합니다. 왜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우리(유대)에게 응원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이 싸우는데 매를 맞던 어린애가 '이젠 됐구나' 하는데 "애들이 왜들 싸우니?"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왔어요. 어린 것이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니까 '해보자'하는 용기가 나는 것처럼, 유다가 앗수르하고 싸워야 할 것이 틀림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시니 이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길 것이 틀림없으니 하나님께 감사부터 합니다. 이것은 기도한 대로 원수가 지고 자기가 이긴 다음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직 전쟁을 정식으로 하지도 않았습디다. 생각을 해 보니 어른과 아이의 싸움같이 보이지만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부르는 성도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원수들과 타협하지도 말고, 낙심하고 타락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때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2,3절)

2,3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셀라)"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해야 할 때에 일하고, 준비해야 할 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에 때를 놓치면 일이 안됩니다. 일이 안되면 마지막에는 망신하고 굶습니다. 그러나 때를 아는 자는 깨어 싸울 준비도

총헌장단



하나님의 심판

(시 75:1-10)



김 창 인

<원로목사>

하고 기도하면서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사에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회개한 만큼 어려움은 속히 도망을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때가 오기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절서를 정하셨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셀라)"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둥을 무너뜨릴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4. 지혜자의 교훈 (4-8절)

4절로 8절까지는 지혜자의 교훈이 나옵니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뽕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실로 그 찌꺼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오만은 교만과 조금 다릅니다. 교만은 내가 너보다 조금 낫다 하며 사람끼리 남을 업수히 여기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만은 하나님까지 업수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업신여겨도 망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면 어찌 망하지 않겠습니까?

앗수르 백성들이 와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너무나 오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높일 자는 높이고 낮출 자는 낮추 시는데 그들은 오만해서 뽕을 내드립니다. 뽕, 자기의 힘이 있으니까 힘을 믿고 약한 자들을 받아 넘깁니다. 이스라엘을 받아 넘겼습니다. 유다를 또 받아넘기려고 합니다. 그런 오만한 자들을 향해 뽕을 함부로 내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올 때에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되는데 찌꺼기도 남김없이 마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두철미한 심판인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어 버리고 심판하시는 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책임과 충성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함(9,10절)

9절에서 10절까지는 감사 찬송하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뽕을 다 베고 의인의 뽕은 높이 들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아삽의 자손은 야곱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의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자의 일을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꼭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약속을 받아서 장차 열 두 형제 중에서 가장 잘되고 열 한 형제가 와서 절한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니까 그 약속은 다 깨진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삼년 동안 고생할 때는 그 약속이 다 깨진 것 같았으나 십년 노예생활과 삼년 죄수노릇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디다. 훈련 시킨 다음에 서른 살 난 요셉을 국무총리로 높여서 형들이 찾아와 무릎 꿇고 절하는 절을 받게 만드십니다.

"악인의 뽕을 다 베고 의인의 뽕은 높이 들리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아삽의 자손의 시를 지은 다음에 얼마 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앗수르 군대 185,000을 하룻 저녁에 죽였습니다. 큰 승리입니다. 185,000명을 먹이려고 가지고 왔던 양식을 다 실어들여다가 예루살렘 시민들을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이웃에 있는 각 나라에서 '야 유대 나라를 삼키려고 갔던 앗수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유대나라하고 틀리면 안된다. 우리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하고 화친하자.' 선물들을 가지고 화친하려고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복에서 김일성이가 무슨 일을 다 한다고 떠들대다가 그 사람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김일성을 정리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심판의 찌꺼기 마실까봐 겁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는 참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위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와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우리들이 생각도 못했던 복을 받습니다. 모르드개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몰랐으나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해 놓으셨습디다. 하만이는 자기가 뽕이 높아지니까 뽕을 함부로 흔들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김일성이 너무 오만했습니다. 김정일도 오만하다가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 사이에도 교만하지 말고, 더욱이 하나님께 절대로 오만하지 맙시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그날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책임에 충성하는 참 백성들이 되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수련회를 마치며 / 고등부 ▶

선생님, 이번 수련회는
제 평생의 신앙생활 중 처음으로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될꺼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련회 끝난 후에 많이 감사했
어요. 수련회 셋째날 기도의 응답
이 없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우연
히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큰 은혜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우선 감사
드립니다. 선생님께도 무척 감사드
려요.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길이 얼
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맘이 기뻐하고 경쾌해서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기뻐어요. 상담할 때
선생님께서 십자가 문제만큼 어려
운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안스럽게
쳐다보시는 그 눈빛 만으로도 저는
큰 위안을 얻었어요. 막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십자가 문제를 안고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울고 소리지
르고 대굴대굴 뒹구를 때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함이 너무 속상했거
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 쓰
러질 지경이고 그 짐은 제게 너무
감당키 어렵고 큰 것인데, 저 혼자
만 뚝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어 저를 힘들게 하는 중에 선생
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셨던 거죠.
아마 선생님과 상담하지 못했더라
면 저는 지금도 그 고민당어리를
지고 내려와서 혼자서 울면서 감정
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을
거예요.

2박 3일동안 십자가 사건의 환
상을 바로 보기 원했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이 진정 '나의 주님'임을 삶
가운데 상기하면서 살아야도록 기
도할게요. 이제는 모태신앙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며, 이대로 안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통
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도록 하
겠어요. 꼭 쓰임받는 자가 될게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도 맺구요.

이런 말부터 앞세우지 않기로 했는
데...

그런데 선생님께만 약속 드릴
게요.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절대로 잊지 않고 생활할게요. 특
히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어린 나이에 견디기 어려운
큰 고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것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꺼야"라는 말씀을 늘 기억할꺼
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앞으로 어
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주님이 제
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키시고 계시
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주님께 쓰
임받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범
이 되도록 하겠어요. 저에게 선생
님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구요. 큰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제 평생의 신앙
생활 중 처음으로 '획기적이고 충
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될꺼예요. 그
리고 선생님은 제게 '큰 영향을 끼
친' 분으로 남을꺼구요. 선생님! 원
하시는 일이 주님 뜻대로 모두 이
뤄지길 기도드리구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이 넘
쳐나길 기도할게요.

앞으로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상담드릴게요. 괜찮지요? 항상 주
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생님께, 선
생님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
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너
무나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
세요.

94. 7. 30
윤 희드림

P.S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행사에 감사하라" 이 말
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맘이
기뻐하고 경쾌해서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기뻐어요. 상
담할 때 선생님께서 십자가 문제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안스럽게 쳐다보시는
그 눈빛 만으로도 저는 큰 위안을 얻었어요.
막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의 많은 전도 책자들은 전도 받는 대상자들에
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에 대해 집착한 나머지 전
도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것처
럼 다루어 왔다. 그러나 「당신도 자신있게 전도할 수 있
다」라는 로자린드 링크의 책은 전도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
중점을 두고 글을 전개하고 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책은 전도에
대해 스스로 자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소책자이다.

당신도
자신있게
전도할 수
있다



로자린드 링크 지음
최연신 옮김

생명의말씀사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도란, 외무나 커다란 부담으
로 여겨질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명예
를 쏘아주게 된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정죄의식을 갖
게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을 때 생기는 무력한 두려움이다. 우리를 대부분은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증거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일곱 장에서는 몇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 책소개

당신도 자신있게 전도할 수 있다

로자린드 링크 지음/ 최연신 옮김, 생명의 말씀사

께서 전도하는데 있어서 사랑이 첫째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의 진지한 노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며, 2장에서
는 사랑은 비인격적인 접근을 멀리하여 종교적인 용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3장에서는 사랑은 결코 '전도를 해야겠다'는 데에 골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4장
에서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요구를 빨리 알아차린다. 사랑은 스스로 여유
를 지닌다는 것이며, 5장에서는 사랑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며, 6장에서는
사랑이 증거될 때 이것은 사람을 압도하려고 애쓰지 않으며 행동을 지시하지도 않
는다는 것이며, 7장에서는 방법론은 그 생명력있는 교제 대신 대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나머지 18장까지는 사랑은 가까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는 전도자란 무엇인가? 전도하는 심리(주관적인 접근 방법과 객관적인 접근 방법),
그리스도의 주강하심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 등으로 전도의 필수요건에 대해 말하
고 있다.

이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10년, 20년 전에 쓰여진 고루한 '방법론'을
잊어 버리고 2000년 전에 사용되었던 주제로 돌아가자, 즉 살아계시며 부활하신 예
수 그리스도로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없이 즐겁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준다. 장 상 기(강도사, 초대4부 지도)

물맷돌

연료와 윤활유

자동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엔진에는 두 가지 기름이 필요하다. 곧 연료
와 윤활유이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은 연료이며, 움직일 때 엔진내
부의 부속끼리 마찰을 줄이게 하는 것이 윤활유이다.

주유소에는 의례치, 급유대가 서너개 놓여있고 사무실 창을 통해 보면 윤
활유 강통이 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름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어느 하나를 무시해서도
안되고 각 기름의 용도를 바르게 쓸 수도 없는 일이다.

연료는 연료로서, 윤활유는 윤활유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에 시스템은 교회, 가정,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다.

교회가 생명력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료와 윤활유가 필요하다. 교회
에서의 연료는 복음전파요, 윤활유는 성도의 교제와 생각된다.

교인 한 명 한 명이 복음전파의 사명으로 불타있을 때 교회는 저절로 움
직여지며(목사님 혼자서 쾅쾅대며 애써봤자 얼마나 움직여왔는가) 이렇게
움직일 때 성도의 교제가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윤활유적인 요
소란 강조되면 유복한 사람들의 사교장으로 화할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의 자동차라도 연료와 윤활유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듯
이 아무리 좋은 말씀의 멋진 교회라도 복음전파의 사명을 망각하거나 성도
의 교제가 없는 교회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뿐이다.

토막소식

- ◆ 교회는 현재 교육관 예배장소 회장이 낡고 오래되어 이번 기회에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교체될 곳은 교육관 107, 109, 201, 205, 212, 307, 314, 414, 507, 514, 602호 총 11개 처이다.
- ◆ 유치부는 매주 교사 2명씩 번갈아 가며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8월 21일에는 성경퀴즈 대회를 계획하고 반별로 준비하고 있다.
- ◆ 초등3부는 각 학급의, 100% 출석을 위하여 토요일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집에 전화심방을 계속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 ◆ 초등4부는 글짓기 대회를 갖고 각 과별 5명씩 우수자 20명을 선정 시상했다.
- ◆ 중등3부는 지난 주간중 8월 3일 5일까지 충현기독교원에서 여름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다.

- ◆ 대학부 2학년은 8월 17일 - 19일까지 농촌에 봉사활동을 나간다. 장소는 충북 음성.
- ◆ 장년1부는 8월 12일(금)에서 13일(토)까지 여름수련회를 충현기독교원에서 갖는다. 주제는 '부활신앙을 갖자', 강사는 김양홍 목사
- ◆ 새가정부는 10월 9일 '94 예수사랑 큰잔치를 갖기로 하고 전 가정이 한 가정 이상씩 초청하기로 하는 한편 신혼가정, 결혼한지 3년 미만된 가정 등을 대상으로 새가정부에 초청하기로 하고 열심히 준비중이다.
- ◆ 에바다부는 농아인을 위한 자막용 기계와 모니터를 준비하고 주일 3부 예배와 수요일예배, 찬양예배 때 사용할 계획이다.
- ◆ 충현경로대학은 2학기 등록을 8월 25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 :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 신성중 목사 : 8월 10일(수) 사이판한인장로교회(김복래 목사 시무) 집회인도
2.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 능력과 건강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3.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시고 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4.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옵시며 죄악과 잘못된 사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5. 예수사랑 큰잔치를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6. 길림성 기독교신학원의 설립과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명의땅-중국을 다녀와서

우리가 가야할 땅

장 우 천
(목사, 교육연구소 지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딤후 1:15)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사명의 땅, 중국을 이번 여름에 다녀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한다.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선교하였던 땅, 다만 선교사의 기록 속에서만 대하고

막연히 생각되던 땅, 중국을 직접 밟아 보고 2주간 동안 돌아볼 수 있었던 일이 꿈만 같다.

1. 갈 수 있는 땅

7월 18일 월요일, 오후에 김포공항을 출발한 중국민항기는 3시간 반 후에 천진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 밖에 나오자 C 교수가 보낸 쭈샹이라는 청년이 우리 일행(유창무 목사, 정광욱 목사, 필자)을 마중한다. C 교수 집에 도착하여 5년만의 해후를 하였다.

7월 19일 화요일, 만리장성과 실삼릉을 돌아보고 저녁시간에는 경극을 보았다. 중국 역사와 문화를 눈으로 보고 느껴 볼 수 있었다. 규모의 웅대함 만큼이나 느껴지는 중국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 소리들. 그 당시 백성들은 노예고 황제는 신으로 행세했음을 보여준다.

7월 20일 수요일, 고궁과 이화원을 돌아보았다.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던 웅장한 고궁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 황실이 마지막에 외국 세력에 의하여 겪은 수모를 생각하며 인생 영화의 덧없음을 절감한다. 저녁 시간에는 승문문교회를 방문하여 조선족의 수요일예배에 참석하였다.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후 30여명 남짓 참석한 성도들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었다. 승문문교회의 김명일 전도사와 뜻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7월 21일 목요일, 김명일 전도사의 안내로 연경신학원을 방문하였다. 허름하게 변해버린 건물이지만 앞으로 역사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깊은 기도를 드렸다. 저녁 무렵에는 연길에



▲ 도문에서 뒤에 보이는 강이 두만강이며 강 건너 보이는 곳이 북한 땅이다. 좌측으로부터 장우천 목사(필자), 정광욱 목사, 유창무 목사.

도착하여 J 교수와 김중호 선생의 영접을 받았다. 연길시 교회와 두 가정을 방문하여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

2. 갈 수 없는 땅을 찾아서

7월 22일 금요일, 아침 일찍 일출정을 찾았고 도문을 방문하였다. 두만강에 손을 담그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아직 갈 수 없는 우리 땅을 바라만 보았다. 천도원훈련원을 방문하여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이 양성되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오후에 장춘에 도착하여 주용하 집사의 마중을 받았다. 밤늦게 심양에 도착하여 차철 전도사의 영접을 받았다.

7월 23일 토요일, 존 로스 목사님이 한국 최초의 성경번역을 하였던 동광교회를 방문하였다. 서탑교회와 동북신학원을 방문하여 6층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돌아보았다. 복음은 중국에서도 힘있게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았다. 저녁 늦게 단둥에 도착하여 K 선생의 영접을 받았다.

7월 24일 주일, 철도교회를 방문하여 만왕의 왕되신 주님께 예배드리다. 오후에는 중국인 원보산 교회를 방문하여 2부 예배시간에 참석하였다. 이 중국인 교회는 약 2000명정도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다. 새로이 짓고 있는 예배당은 2000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큰 건물이다. 주일 날인데도 공사를 하여

수풍 댐위에서 밑으로 바라다 보는 마을은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던 그 마을이 아니던가. 하류에서 세례식이 있었고 나룻배를 타고 북한 땅에 아주 가까이 나아갔다. 빨래를 하던 북한 병사와 몇 마디 말을 건네다가 "거 손에 든게 뭐요?"라는 통명스런 말에 급히 뱃머리를 저 쪽으로 향하였다.

아! 민족의 아픔이여, 우리 땅, 우리 동포이면서도 함께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슬했다.

7월 27일 수요일, 9시간 반 버스를 타고 대련으로 가다. 대련교회에 도착하여 성도님들과 뜨거운 인사를 하다. 은혜가 넘치고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대련교회에서 수요일예배를 드렸다. 예배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온 신학원 학생 12명이 나와서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온 교인들이 뜨거운 시간을 가졌다.

7월 28일 목요일, 밤 늦게 7시간 배를 타고 위해로 가다.

7월 29일 금요일, 오후에 배를 타고 위해를 출발하였다. 그동안 고생도 되고 귀한 경험도 많이 하여 정든 중국 대륙을 떠나는 것이 섭섭하다. 그러나 속으로 다짐해 본다. 그래 우리는 이 중국 대륙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여야 한다고

7월 30일 토요일, 아침 인천에 도착하였다. 아 조국이며, 당신의 포근한 품속에서 오늘은 단잠을 자고 내일은 '새힘을 얻어 다시 힘차게 일할 수 있으리라'.

3. 가야 할 사람들

중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갈 수 없는 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분명히 바뀌었다. 중국이 휘하고 있는 개방의 흐름은 사실이다. 많은 사람이 중국을 오고가고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국이 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은 우리들에 갈 수 없는 땅,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제1과제인 통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1과제인 선교를 위하여 우리들은 중국이라는 땅으로 가야 할 사람들인 것을 깊이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물어 보았더니 죄수들을 동원하여 정부에서 짓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오후에는 굵어진 압록강 철교 위에서 신의주를 바라보면서 깊은 상념에 잠겼다.

7월 25일 월요일,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신의주 땅에 아주 근접하여 북한 사람들을 보고 손을 흔들고 서로 인사하였다. 배 위에서 바라보는 단둥시와 신의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단둥시는 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반면 신의주는 나무만이 울창할 뿐이었다. 단둥에서는 모터 보트들이 수시로 출발하여 강위의 중국과 북한 국경을 넘어 신의주 땅을 아주 가까이서 구경하지만 신의주 쪽에서는 유람선이 움직일 줄 몰랐다.

7월 26일 화요일, 수풍댐을 다녀오다.